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01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고 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고 1~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중 1~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얽히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이는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이다.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
전통 형이상학을 새롭게 해석
 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
존재 이해의 새로운 시각 제시
 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
인간 중심적이라는 비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함.
 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계가 인간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관점 제시

단락별 핵심 정리

1 단락

- 유물론은 세계의 본질을 물질로 보고, 주관적 관념론은 세계의 본질을 정신으로 본다.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비판하며, 인간과 사물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 유물론 : 세계의 본질 = 물질, 의식·정신도 물질의 산물
 - 주관적 관념론 : 세계의 본질 = 정신, 외부 세계는 의식 속에서만 존재
 - 하이데거의 비판
1. 유물론 비판: ①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 ②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
 2. 주관적 관념론 비판: ① 사물의 의미가 인간이 구성하는 것이 아님.
 3. 인간과 사물은 세계 속에서 함께 관계 맺으며 존재

2 단락

-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자'만 탐구했다고 비판하고,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인 '존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현존재'이며, 존재는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고 보았다.
- 전통 철학 → 존재자(개별 사물) 중심 연구
 - 하이데거의 주장 → 존재(존재자의 드러남)를 탐구해야 함.
 - 현존재: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인간,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
 - 존재와 시간: 존재는 시간 속에서 드러남, 과거·현재·미래가 서로 얽힌 구조
 - 존재 이해 방식: 과거 : 어떻게 드러나 왔는가, 현재 : 다른 존재자와 어떤 관계인가, 미래 :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가
 - 결론: "존재는 시간이다."

3 단락

- 하이데거는 사물이 인간과 맺는 관계에 따라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사물은 도구로 사용될 때 '손안에 있음'으로, 객관적 대상이 될 때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 전통 철학 비판: 사물을 정적인 대상으로만 이해
 - 하이데거의 구분: ① 손안에 있음: 도구로 사용되는 상태, 사물을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 예 : 망치로 못을 박을 때
 ② 눈앞에 있음: 사물이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됨, 예 : 망치가 부러져 사용 못 할 때
 - 핵심: 사물의 존재 방식은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실제 세계 경험 → 대부분 **손안에 있음**.

4 단락

- 존재자는 인간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대응설적 진리관을 비판하며, 존재자는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때 다른 가능성은 동시에 숨겨진다고 보았다.
- 실존적 지평: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 존재자는 이 틀 속에서 드러남
 - 전통 철학 비판: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 경험을 넘어선 실체 탐구
 - 예시) 붉은 꽃 → 색맹 동물에게는 회색 ■ 의미: 진리는 **경험과 관련**
 - 대응설 비판: 명제 ↔ 실제 사태 일치 → 참.(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함.)
 - 하이데거의 관점: 사물은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남**.
 - 은폐 개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면 다른 가능성은 가려짐

5 단락

- 하이데거는 서양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며 존재 이해 방식을 확장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세계가 인간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
- 하이데거의 의의: 서양 전통 형이상학 재검토, 존재 이해 방식 확대
 - 비판: 현존재 중심적 관점, 대상이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음.
 - 의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 인간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남.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 유물론·관념론 모두 비판, 철학의 과제 = 존재 물음, 인간 = 현존재, 존재 이해 = 시간 구조, 사물 존재 방식, 손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 존재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남, 드러남과 동시에 다른 가능성은 은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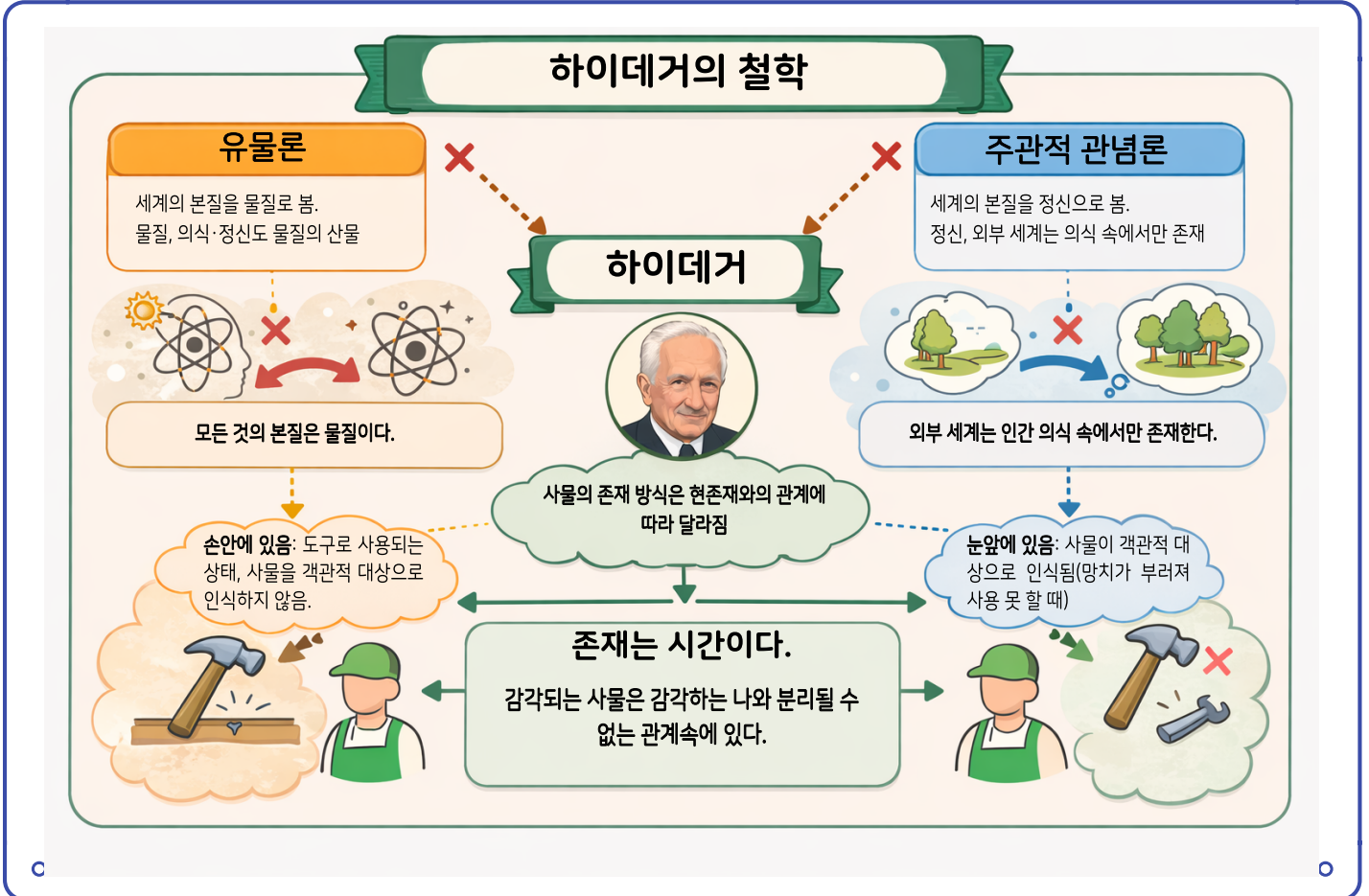
압축 요약

논리학은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위해 추론의 구조와 타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형식 논리학은 전제와 결론이 모순 없이 연결되는 논리 구조의 타당성을 중시한다. 이때 전제가 실제로 참인지 여부보다 무모순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후설은 형식 논리학이 왜 모순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그는 논리의 타당성이 인간 의식의 선험적 구조와 직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험적 논리학은 논리의 성립 조건과 근본 토대를 탐구하는 '논리의 논리학'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와 구절 해석

- “하이데거는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나 정신적 주체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의미] 하이데거는 인간을 단순히 물질이나 정신으로 설명하는 기존 철학을 비판하며, 인간을 세계 속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현존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존재자는 현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의미] 사물은 인간과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며, 존재 방식은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날 때 다른 존재 가능성은 동시에 은폐될 수 있다.”
[의미] 사물은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때 다른 방식의 의미나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되며, 존재의 드러남과 가려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존재 이해는 과거·현재·미래가 얽힌 시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의미] 인간은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 미래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며, 존재 이해는 이러한 시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 “도구는 사용할 때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나지만, 고장 나면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의미] 사물은 사용될 때는 도구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객관적 인식 대상이 되며, 존재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현존재뿐이다.”
[의미]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인간은 존재를 이해하는 중심적인 존재로 설명된다.

글의 의미 구조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얽히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이는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이다.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01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존재는 개별 사물로서의 존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 ② 존재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③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존재자와 구별된다.
- ④ 존재는 과거·현재·미래가 상호 의존적으로 얽힌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⑤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간주된다.





02 하이데거가 유물론을 비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를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 ②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동일한 물질적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 ③ 존재를 시간과 분리된 정적인 실체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 ④ 사물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인간 경험과 무관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03 하이데거의 '시간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존재한다.
- ②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③ 존재는 과거·현재·미래의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
- ④ 시간은 존재와 무관한 객관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 ⑤ 존재는 미래 가능성과만 관련되어 이해된다.

04 하이데거가 제시한 '손안에 있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이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분석되는 상태이다.
- ② 사물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상태이다.
- ③ 사물이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상태이다.
- ④ 사물이 물질적 속성에 따라 분류되는 상태이다.
- ⑤ 사물이 인간 의식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상태이다.

05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존재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 ②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사물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
- ③ 사물의 의미는 인간 의식이 독립적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 ④ 존재자는 특정 방식으로 드러날 때 다른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될 수 있다.
- 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질문할 수 있는 현존재이다.

06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재의 의미를 인간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했기 때문에
- ② 존재를 인간 의식의 구성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 ③ 존재자를 시간과 무관한 정적 실체로 분석했기 때문에
- ④ 존재의 의미를 미래 가능성과 관련지어 이해했기 때문에
- ⑤ 존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07 [보기]의 상황을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학생이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이 고장 나자 그는 스마트폰의 구조와 원인을 자세히 살펴본다.

- ①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앞에 있음'으로 경험된다.
- ② 스마트폰은 도구로 사용될 때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 ③ 스마트폰은 고장이 발생한 이후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 ④ 스마트폰은 도구로 사용될 때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 ⑤ 스마트폰의 존재 방식은 인간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08 전통적인 대응설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과 관련하여 '진리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는 명제와 실제 사태의 일치 여부로 결정된다.
- ② 진리는 인간의 논리적 추론 능력에 의해 확정된다.
- ③ 진리는 인간 경험과 무관한 객관적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
- ④ 진리는 존재자가 드러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 ⑤ 진리는 인간 의식이 사물의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성립한다.

09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현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②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 ③ 현존재는 존재자의 의미를 인간 의식 속에서 구성한다.
- ④ 현존재는 시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한다.
- ⑤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10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재자는 인간과 독립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 ② 존재자는 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
- ③ 존재는 인간과 존재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 ④ 존재는 물질적 실체의 근본 구조를 의미한다.
- ⑤ 존재는 인간 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개념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게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었다.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얽히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는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어 이 방식을 설명했다.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한다. 이는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도구이다.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되어 ‘눈앞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1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존재를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이해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상호 얽힌 시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② 존재자가 현존재와 맺는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날 때, 그 존재자의 다른 존재 가능성은 동시에 은폐될 수 있으며, 이러한 드러남과 은폐의 관계는 현존재의 세계 경험 속에서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현존재가 도구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도구는 객관적 인식 대상이 아니라 실천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며, 이때 도구는 ‘손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존재자는 현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으나, 이러한 드러남은 시간 구조와 무관하게 존재자의 고정된 본질이 인식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⑤ 존재는 단순히 존재자를 분석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존재 물음은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간주된다.





12 [보기]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연구자가 평소에는 노트북을 논문을 작성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는 노트북을 사용할 때 노트북 자체보다는 연구 작업에 집중한다. 그러나 어느 날 노트북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자 그는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며 내부 구조와 고장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트북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하나하나 인식하게 된다.

- ① 노트북이 처음에는 연구 작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고장 이후 분석 대상이 되는 과정은 존재자가 현존재와 맺는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방식으로 드러난 존재자는 다른 가능성이 은폐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② 노트북이 연구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과 분석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모두 존재자가 객관적 인식의 대상으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존재 방식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③ 노트북이 연구 도구로 사용될 때는 현존재가 존재자의 물질적 속성을 분석하는 상태에 해당하며,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존재자가 도구로서의 맥락 속에서 경험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④ 노트북이 연구 도구로 사용될 때와 고장 이후 분석 대상으로 인식될 때는 모두 존재자가 현존재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⑤ 노트북이 고장 이후 분석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존재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고정된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현존재의 경험이나 시간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3 하이데거가 ㉠~㉣에 대해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보고 인간의 의식과 정신까지 물질의 산물로 환원하는 입장은 인간을 다른 사물과 동일한 물질적 존재자로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의 특수한 존재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② ㉡: 외부 세계가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은 사물의 의미가 인간 주체에 의해 구성된다고 전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인간과 사물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③ ㉢: 존재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형이상학의 전통은 존재자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삼게 하여, 존재자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 과제로 삼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④ ㉣: 이성을 중심으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실체를 탐구하려는 태도는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세계 속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시간과 무관한 정적인 실체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강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⑤ ㉤: 논리 명제가 실제 사태와 대응할 때 참이라고 보는 관점은 존재자가 현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과 존재의 시간적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진리를 단순히 논리적 일치의 문제로 환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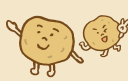
14 하이데거가 ㉠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사람이 망치로 못을 박을 때 그는 망치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 이때 망치는 현존재와의 실천적 관계 속에서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나며, 동일한 사물이라도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망치라는 사물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물리적 구조와 성질을 지니며, 이러한 물질적 특성은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인간은 이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물의 객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지 여부는 그 명제가 실제 세계의 상태와 정확하게 대응하는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 감각 경험은 단지 그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 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의미가 구성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물의 존재 여부는 인간의 의식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15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존재의 의미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로 이해된다.
- ② 사물은 인간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존재자로 이해된다.
- ③ 존재는 단순히 존재자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과거·현재·미래가 상호 얽힌 시간 구조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 ④ 사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의미가 구성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곧 사물의 존재 방식을 결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⑤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주체로서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사물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존재자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Q1

[정답] ①
(해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개별 사물인 '존재자'를 중심으로 탐구한 것을 비판하고,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인 '존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존재를 존재자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하이데거의 입장과 다르다.

[오답 피하기]

- ② 존재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인 '현존재'라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 ④ 존재는 과거·현재·미래의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고 보았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를 철학의 핵심 과제로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Q2

[정답] ②
(해설)

하이데거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 이해한다고 보아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존재자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는 주관적 관념론의 특징이므로 유물론 비판 이유와 관련이 없다.
- ③ 이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 ④ 사물의 의미가 인간이 구성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주관적 관념론이다.
- ⑤ 지문에서는 유물론이 사물의 존재 방식을 인간 경험과 무관하게 설명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Q3

[정답] ③
(해설)

하이데거는 존재가 과거·현재·미래가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존재는 시간이다."라고 말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하이데거는 시간을 서로 분리된 차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이해하였다.
- ② 존재 이해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함께 엮힌 시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④ 시간은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되므로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는다.
- ⑤ 존재는 미래 가능성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

Q4

[정답] ③
(해설)

'손안에 있음'은 사물이 객관적 인식 대상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우리는 망치 자체보다 못을 박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며, 이때 망치는 '손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는 사물이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눈앞에 있음'에 해당한다.
- ② 단순한 감각 인식은 '손안에 있음'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④ 물질적 속성에 따른 분류는 하이데거의 존재 방식 구분과 관련이 없다.
- ⑤ 사물 의미를 인간 의식이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관념론적 설명이다.

Q5

[정답] ③
(해설)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과 사물이 세계 속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존재자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②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방식이 드러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존재자가 특정 방식으로 드러나면 다른 가능성은 은폐된다고 보았다.
- ⑤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보았다.

Q6

[정답] ③
(해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자를 시간과 무관한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려 했다고 보아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존재를 시간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는 하이데거 자신의 입장이다.
- ② 이는 관념론의 설명에 가깝다.
- ④ 미래 가능성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이다.
- ⑤ 존재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도 하이데거의 관점이다.

Q7

[정답] ④
(해설)

도구가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도구는 '손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스마트폰을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손안에 있음' 상태이며, 고장 후 분석 대상이 될 때는 '눈앞에 있음' 상태가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사용 중일 때는 '손안에 있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도구로 사용되는 상태는 '손안에 있음'이다.
- ③ 고장 후 분석 대상이 될 때는 '눈앞에 있음'이다.
- ⑤ 존재 방식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Q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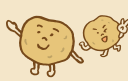
[정답] ④
(해설)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대응설을 비판하며 진리를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그는 진리를 단순히 명제와 현실의 대응 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이는 전통적 대응설의 설명이다.
- ② 논리적 추론만으로 진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인간 경험과 무관한 객관적 실체로 진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 ⑤ 사물 의미가 인간 의식이 구성한 결과라는 관점은 관념론에 가깝다.





정답 및 해설



09

[정답] ③
(해설)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과 사물이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 ②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 ④ 존재는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고 보았다.
- ⑤ 죽음 인식이 존재 물음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10

[정답] ③
(해설)

하이데거는 존재가 인간과 사물이 세계 속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존재는 단순한 물질적 실체나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존재 방식은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② 존재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④ 이는 유물론적 설명에 가깝다.
- ⑤ 이는 관념론적 설명에 해당한다.

11

[정답] ④
(해설)

하이데거는 존재를 시간 구조와 분리된 고정된 본질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가 과거·현재·미래가 통합된 시간 구조 속에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현존재의 존재 이해가 시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② 존재자의 드러남과 은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맞다.
- ③ 도구 사용 상황에서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 ⑤ 존재 물음이 철학의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12

[정답] ①
(해설)

도구로 사용될 때 노트북은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나며, 고장 이후 분석 대상이 될 때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 이는 존재자가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특정 방식으로 드러날 때 다른 가능성이 은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② 도구 사용과 분석 대상 상황은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이다.
- ③ 설명이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을 뒤바꾼 것이다.
- ④ 존재 방식은 현존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존재가 고정된 본질로 드러난다는 설명은 하이데거의 입장이 아니다.

13

[정답] ⑤
(해설)

지문에서 하이데거가 대응설을 비판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물이 단순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즉 대응설이 명제와 실제 사태의 대응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관점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⑤는 대응설이 존재의 시간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지문에서 제시된 비판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유물론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 환원하여 현존재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된다.
- ② 주관적 관념론은 사물의 의미를 인간 의식이 구성한다고 보지만, 하이데거는 사물이 세계 속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전통 형이상학은 존재자에 집중하여 존재 자체의 문제를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 된다.
- ④ 전통 철학은 존재를 시간과 분리된 정적 실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14

[정답] ①
(해설)

②는 감각되는 사물이 감각하는 인간과 분리된 독립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는 하이데거의 입장을 보여 준다. ①은 망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물이 현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손안에 있음'으로 드러난다는 예시를 통해 사물이 인간과의 실천적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②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된다.

[오답 피하기]

- ② 사물이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설명으로, 감각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성을 강조한 ②의 주장과 어긋난다.
- ③ 이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통 철학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감각 경험과 관계성을 강조한 ②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 ④ 진리를 명제와 실제 사태의 대응으로 설명하는 대응설에 관한 설명으로 ②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⑥ 사물의 존재가 인간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주관적 관념론의 입장으로, 하이데거의 관점과 다르다.

15

[정답] ④
(해설)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였다. 그는 사물이 인간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과 사물이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물의 존재 방식이 인간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고 이해한 ④는 하이데거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현존재로 이해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② 사물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설명으로 적절하다.
- ③ 존재를 시간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입장을 반영한 설명이다.
- ⑤ 인간을 세계 속에서 사물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해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